

그리는 인간상

부지런히 배우고 바르게
행하는 슬기로운 학생

성녀의뜰

2007년-11월호

통권-23호

2007. 11. 5

• 발행인 : 고장 이월행 • 발행처 :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 • 주소 : 충청주 상당구 수동 390 • 전화 : (043) 253-7422



가을 만나 成女의 뜰에서



以人為本

사람이 根本이기에 근본을 따르며 배우는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
가을을 맞이하여 季節만큼 成女도 함께 盛裝(성장, 成長) 합니다.
가을은 선녀화 눈발고 맑고 높게 오르고, 오르는 만큼 成女의 꿈과 사랑과
희망이 요요 뭉고 향스럽게 익어갑니다.

가을은 成女입니다.

이 成女의 季節에 아름다운 마음과 따뜻한 손과 부지런한 발걸음 잡고, 汗을
찰며 활짝 열려있는 成女의 門을 자랑합니다!

自足하여 지어하여 지어가는 成女家族 모두를 사랑합니다.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
교장 李 月 行

1. 새롭게 단장한 화장실

본교에서 8월 중순부터 실시한 화장실 확충 및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다. 공사는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화장실 내부에 칸막이 교체 공사를 실시한 후 강와 유리 출입문을 설치하여 모든 화장실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탈바꿈했다.

총 3개의 화장실을 감각적이고 현대적으로 개축한 이번 공사로 성녀인은 쾌적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 미끄럼 방지 공사

본관의 사면 계단 및 등관 경사로의 바닥재를 철거하고 새로운 재질의 미끄럼 방지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특히 경사로에는 핸드레일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3. 대학 수시 합격

2008년 대학 수시 1학기에 원주대학교를 비롯하여, 목원대학교, 대경대학교, 충청대, 공주영성대학, 우성대학, 광양보건대, 대전보건대에 6명이 합격하였다.

4. 취업현황

본교 3학년내 재학 중인 10명의 학생이 30일 현재 메리츠증권, 하이닉스반도체, LG전자, 새원신용협동조합 등에 취업이 확정되었다.

5. 동문소식

○ 2007년 총동문회 7월 7일 정기총회

2007년 총동문회 정기모임이 아래와 같이 개최되었다.

- 일시 : 2007년 7월 7일 토요일 오후 3시
- 장소 : 레이크힐
- 새 소식 : 회계보고 및 신임 임원 선출

○ 2007년 총동문회 9월 14일 임시총회

2007년 총동문회 임시총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었다.

- 일시 : 2007년 9월 14일 금요일 오후 7시
- 장소 : 토담
- 새 소식 : 전 임원(연순동회 제8) 감사대 전달

○ 신임 임원 명단

회수	직책	성명	회수	직책	성명
10회	회장	김정혜	11회	감사	홍준호
10회	부회장	권순여	13회	감사	권수덕
11회	부회장	이상규	15회	사무국장	고금애
21회	부회장	전계숙	9회	교문	연순동

학교를 아끼고 사랑하는 동문·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후원은
우리 학교 학생들의 연학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의 밑거름이 됩니다.
조성된 기금은 한해 장학금으로 지급됩니다.
동문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모금 계좌 개설
(국민은행 40101-04-110070-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

학생회장 인사말

안녕하세요, 사생합니다. 학생회장 유계선입니다.

앞이 떨어진 나무는 앙상한 가지들 보이며 사랑들의 웃이 무거워지는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날리는 바람 해지고 맑기는 기운을 부리는대 성녀인 여러분! 건강하게 자라고 계신가요? 회장이라는 자리에 서서 새로운 각오로 시작했던 2007년도 어느새 흘러가 벌써 2개월이라는 시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07년은 자에게 어느 때 보다 귀중하고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많은 일과 추억이 있지만 그 중 성녀 축전엔 자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작년과 달리 조금 앞당겨 열렸던 성녀 축전이기에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녀인 모두 열심히 연술하여 멋진 공연으로 무대를 환하게 빛내 주었습니다. 곳은 날씨로 미나 움직임이 영리지 않아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선생님들과 성녀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성녀축전이 성행하여 막을 내린 것에 대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후년에도 우리 성녀 축전이 더욱 발전하고 더 유익한 축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빠르게 1년을 보내는 것 같아 후회스럽고 아쉽지만 흘러가는 시간을 잡을 수 없는 것이기에 지금은 남은 2개월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으로서 봉사하며 지나는 시간의 재가 채우지 못한 빈자리를 알차게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 1월 7일 신입생 환영회 (3, 7)



● 졸업회 (4-5)



● 1학년 수련활동 (화양수련원, 4, 2-4)



● 2학년 수학여행 (4, 16-19)



● 20년 제례(제) (5, 11)



● 경제교육 / 성교육 / 소성훈련



●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9, 30)



● 추계소풍(10, 5)

본교 제2회 성녀 축전이 9월 4일(화)부터 9월 5일(수)까지 이틀에 걸쳐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열렸다. 이번 축전은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전시회와 알찬 행사로 이루어졌다. 4일에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시 작품 관람, 교내 컴퓨터 경진대회, 교내 컴퓨터 경진대회, 학교별 발표회가 진행되었다. 교내 컴퓨터 경진대회는 입학 부문은 1학년 8인 서우리, 정보 검색 부문은 1학년 4인 김민지, 용례 이지 부문은 1학년 9인 선우리가 최우수를 차지하였다. 학교별 발표회는 1, 2학년 학생들이 유쾌한 장기자랑을 선보이며 학교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강한 활동성이 느껴지는 무대로 꾸며졌다. 학교 발표회에서 1학년 10인, 2학년 4인이 최우수로 화려 무정한 상을 받았다.

5일에는 교과선생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성녀 한마당이 열렸다. 가야금반, 현악반, 합창반의 아름다운 선율과 시낭송, 가요, 배여 춤인, 벨리댄스, 한국무용 등 성녀인의 끼와 재능을 엿볼 수 있는 멋진 무대가 펼쳐졌다. 특히 충효도, 길스카우, 해맑소년단은 수화, 댄스, 패션쇼 등 색다른 공연을 선보여 학생들의 이목을 끌기 충분했다.

성녀인이 작품이 존대한 전시 작품과 학부모 전시 작품이 미래관 및 교사 후원에 전시되었다. 성녀인 모두가 참여한 독서캠페인은 미래관 3층 도서관에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은 본교의 등나무 앞에 전시되었으며 각 동아리들의 작품은 미래관 1.2.3층에 전시되어 미래관을 돌면서 모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다. 한편, 5일 오후에 열리기로 했던 프로그램인 태극무림극이 우천으로 인해 취소되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2학년 조은아)



학교별 발표회 최우수반 소개

2학년 4반

2007년 9월 4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녀 축전이 열렸다. 우리 반은 학교별 발표회를 위해 그동안 연습해 온 재주를 뽐내는 시간이었다. 우리의 차례가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더해졌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어떻게 했는지 무대에서 내내 떨었던 기억 뿐이 없다. 드디어 발표 순간이 되었다. "최우수 2학년 4반" 열심히 준비한 결과 우리 반은 성녀 축전 학교별 발표회에서 1등을 가져오는 영광을 안았다. 매일 저녁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친구들과 연습을 해 온 우리들은 노력의 결실이 매우 행복했다. 축제 2일째인 5일 날에는 영웅 공연도 하였다. 딱 전체가 하나의 마음으로 전교생 앞에서 공연을 하고 1등을 하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학생시절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번 성녀 축전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2학년 성수진)

1학년 10반

학교 끝나고까지 모두가 남아서 열심히 하고 또 온 모아서 맛있는 먹거리까지 먹으면서 나머지 해야 한다는 건 힘들었지만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라서 너무 즐거웠다. (박민정)

중학교 축제와는 다르게 주말까지 나와 축제준비를 열심히 해서 즐거웠다. 또 우리 반이 어떻게 단원도 있었고 1등도 해서 엄청 기뻐다. 피자를 기다리다- (정유진)

주말에 나와서 연습을 해서 싫었지만 애들과 연습하다보니 재미있었다. 다들 함성이어서 노래를 부를 때 목이 아팠던 것만 빼고 말이야. (이지수)

서역시역했던 친구들과도 연습하면서 즐거웠고, 열심히 해서 상도 조금 잔학 조금 빠진 것 같다. 많이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와서 좋다. 아유 피자- (최혜영)

짧은 기간에 열심히 연습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서 대단히 기쁘고 단원인 우리 반이 대견스러웠다. 수고 했어요. (김민선생님)

박보영 - 본교 3학년 재학 중인 박보영은 뛰어난 연기 실력으로 SBS 드라마 '얼과 나'에서 카이유비(유소하)를 훌륭하게 소화해 주목받고 있는 배우 유망주이다. 출연작으로 EBS 청소년 드라마 '빅 얼이 고장', SBS 드라마 '내사랑', SBS 드라마를 '달나라 고동'이 가 있으며 한국 수자원 공사의 공익 광고를 비롯해 우리은행, SK Ting 등 많은 디에 출연하고 있다. 박보영은 단아한 모습과 성숙한 연기로 호평을 받으며 연예계의 신데렐라로 떠오르고 있다. (2학년 송수아)



수영부 -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본교 수영부는 많은 한국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성녀전의 자랑이다. 제7회 동아 수영대회에서 국가대표로 활동 중인 이거라(3학년)는 자유형 100M, 500M에서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1위를 하였다. 정우희(1학년), 이원희(2학년), 유사라(2학년), 이경진(2학년), 이거라(3학년)는 계영 400M과 계영 800M에서 3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7 MBC에 수영 대회에서 이거라는 자유형 100M과 200M에서 1위를 하였으며 정우희 이원희, 유사라, 이거라는 계영 400M과 계영 800M에서 2위를 하였다.

특히 이거라는 뛰어난 기량으로 2006년 12월 도하 아시아게임에서 국가대표로 출전하여 계영 8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하고 제8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100m 금메달, 200m 은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본교 자랑스러운 수영부원은 앞으로도 무한한 발전이 기대되는 수영의 유망주로 성녀전의 이름을 날리며 수영부의 밝은 빛을 전해줄 훌륭한 선수로 활약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2학년 김지숙)



탁구부 - 40여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탁구부는 지난 야매내 올림픽 탁구 복식 은메달 러스트인 국가대표 최은미 선수 및 많은 우수한 선수를 배출한 성녀의 자랑이다. 제 45회 전국 남녀 중,고 학생 공평 탁구대회 여고부 단체전에서 3위를 차지하였으며 김아영(1학년)과 이유미(2학년)는 제 45회 최장기 전국 남녀 중,고 학생 탁구 대회에서 여고부 개인 복식 3위를 차지하였다. 본교 탁구부원의 무한한 발전으로 앞으로의 탁구가 밝은 빛을 전해주는 훌륭한 선수로 활약하기를 기대한다. (2학년 이용진)

이 가을에

책소개 - 영화를 통해 탐구하기 스킵

이 책은 책 렌탈도 종이 직접 보고 느낀 것을 엮어 만든 아름답고 검증적인 23권의 단편소설이다. 탐구하기 스킵란 미국 민간요법의 하나를 찾아서 봉살이 낯을 대 할때나 어머니가 물어주시는 전통을 식아라고 한다. 제목에 '탐구하기 스킵'을 시용한 이유로 삶에 지쳐 기운과 용기가 필요한 이들에게 충분한 치료음식이 된다는 뜻에서였다고 한다. 힘들고 지친 일상 속에서의 피곤함을 어둠에서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 (1학년 최소영)



영화 소개 - 자막재해의 공포 '두모로우'

'두모로우'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단체로 보러간 영화다. 처음에는 별로 기대 안하고 봤는데 우선 기상이변이 나오는 장면에서 화려한 특수효과로 나의 눈을 사로잡았고 그 뒤에 나오는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이야기가 정말 내가 본 재난 영화 중 최고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였다. '두모로우'라는 영화의 제목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담담 내일은 아니더라도 온 낙할 수 있는 날' 이라고 한다. 영화는 환경 파괴와 기상이변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지금,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자연과 함께 살 수 있고 살아야하는 한, 영화를 보고 후회하는 일은 없다. 담담 내일은 아니더라도 온 낙할 수 있는 날……' 그것이 두모로우다. (1학년 오연주)



학년	성명	시상내용	등급
3	이혜림	제12회 전국학예콩쿨 금빛기 대회	최우수상
3	최진아	제 34회 전국 고등학교 미술 실기 대회	특선
3	한승기	2007 용이 아트 페스티벌에너스티켓 실기 대회	특선
3	안소연	제7회 지지 배로 알기 청소년 퀴즈, 그림, 백일장 대회(백일장부문)	대상
1	강소현	제8회 사월초파일 봄축 축제 청소년 그림 대회	최우수상
2	홍진선	제7회 지지 배로 알기 청소년 퀴즈, 그림, 백일장 대회(백일장부문)	최우수상
3	우은유	제40회 목원대학교 총장배 전국 무용대회	대상
3	박예진	제3회 충청대학교배 전국 미술경진대회	은상
2	조유주	제8회 청룡연필 청소년소년 새만나을 축제(문예)	은상
3	유미연	2007 맑고 푸른 아름다운 충북 단풍기 글 공모전	입선
3	이은혜	제14회 학생음악 경연대회(한여부문)	금상
3	정난희	제12회 청주시 생활 체육 축제 합기도 대회(고등부-라이프급)	1위
2	심수진	제23회 용문회 삼천 글짓기 대회	은상
2	오정은	제24회 회암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	2위
2	임종희	제10회 전국 초, 중, 고등학교 학생체육 경연대회	장려상
1	최영은	제16회 고등학생 한국 사자 공모전	입선

동아리소개

만화반 - 안녕하세요, 청주대성이 상 인화동여러 GEM입니다! 밝은 보석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선우세간의 정과 단란한 실력을 바탕으로 매년 실시되는 성녀 축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사에서는 창작 만화책 출간, 충청대학 청소년 특기 경진대회 참가, 수원대학 창업동여러 발표 및 경진대회 참가, 경원대학 창업동여러 발표 및 경진대회 참가, 만화제작 개인별 케리커처를 다수 제작해왔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더욱 발전된 만화부 행이 되겠습니다.



방송반 - 안녕하세요, 서로 아껴주고 친구 같은 편안한 생활 속에 고등학교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대상여상 방송반 D·B·S입니다. 저희 D·B·S는 성녀인의 즐겁고 편안한 휴식을 위해 매일 점심시간에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녀 축전과 신임생 환영회에 사회를 보며 미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D·B·S는 성녀인 모두가 함께하는 희망을 주는 D·B·S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더욱 발전된 방송반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나의 미래를 찾아주는 학교

글 · 그림 최수진



공부속의 진정도 해는...



성녀의 길을 걷는다.

1학년 유현주

“음메~” 하고 때어나 벌레 16년이란 시간이 흘러 어느덧 17살이 되었다. 할아버지 나에게 어느 정도의 성숙함이 나에게 자리 잡고,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보니 친구들은 거의 다 손을 거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무런 꿈이 없던 난 놀라웠다. 나는 왜 지금까지 꿈이 없었나? 아무런 목표도 없이 혼자 지내려고, 행복 당하지 않으려고 공부할 뿐 것은 아닐까? 이제는 꿈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에게 꿈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꿈이 없어 마음속에 생각만 하고 있었다.

나는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었으나 용기가 없었다. 한어두었던 '유치원교사'가 되는 꿈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고등학교에서 첫 중간고사 성적표를 받았을 때 좋은 성적을 받았다. 항상인 성적은 나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나는 부끄럼이 없고 내 의견을 잘 말하지 않는 성격이라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친구가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 친구의 의견을 무조건 따를 정도로 생각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동아리에 활동을 하다보니, 사할문과의 사교성이 좋아졌고, 사람들 만나는데 자신감이 생겼다. 17살에 드디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용기를 얻어 지금 나의 중대한꿈은 '유치원 교사'가 되었다.

고등학교가 기대다른 '성숙함'이란 것은 할부지였던 나에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준 신물이 되었다. 앞으로 더 넓고 더 할난문 모양이 생길지 모르지만, 나보다 더 노력하고 있는 사람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여 그들보다 훨씬 더 높이 날고, 훨씬 더 깊이 잠수에 들어가고, 훨씬 더 쉽게 세상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는 내가 되고 싶다.

힘내자! 내래겐 아직 수많은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 아자! 아자!!

제12회 전국 학생 통일 글짓기 대회 - 통일부 장관상 수상

그 곳에 계셨습니까

3학년 이혜민

바지자락 힘겹게 부여잡고
황야속에 끝까지 기다려야
지모처럼 통곡하였을
그대들을 남겨두고 어찌
그 곳으로 가겠습니까
천근같은 철모를 머리에 쓰고
사리드투 자카를 총을 쥐어잡는
당신의 뒷덜을 손을 생각하여
하는 이렇게 두 눈을 질근 감습니다



조국이란 천일동안이
그 이름아래 카미요이 웃어미었을 당신을
아르레도 밤서워 파출원 손을 바라보며
쓰린 옷을 짓고 깊은 한숨 내쉬었지요
아저 새 바람에 다 세우버린
당신의 좌안 머리차하엔
아직도 화약냄새 난다. 적시에
두 눈 가득 눈물 앞서치고는
차아 흘리지는 못하십니까

그 날을 생각하시며 잠 못이루는 밤엔
그러 말해 한 개피 입안에 담으시고
술술히 맛껏갈 새침 땅 하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고 최연의 버린 세상을
아속해다 하시자면 그대도 월망은 연하십니까
당신처럼 피를 부렸을 이 땅은 기억합니다
치열하고 두려웠던 지난 날의 그 시절을
아 그러서 최연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세월을 아이미리고자 숨이 차 오르코
부들거리어 주리 앉으려 하는 다릴 붙잡으며
그렇게 달려나가기만 했습니다
이름다운 이 따뜻한 땅의 지권을 돌아 본 순간
거문 개 가득 얼굴에 묻혀지고
고통서 비명을 지른 당신을
이제야 손을 들어 가득 안아봅니다
그였습니다 그 곳엔 꿈이던 꿈을
양상화처럼 감한 손으로 잡치고
주름자락한 얼굴을 할 당신이
어련히 그 곳에 계셨습니다.



성녀의 길

신문 '성녀의 길'에서는 시, 소설, 편지, 기행문, 학교 소식 등 모든 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성녀, 선망사의 많은 글이 부탁드립니다.
→ 1층과 2층의 독자 부고판을 이용해 주세요.



본교 2008학년도 신입생 전형요강 발표

1. 모집장면

- 경영정보과(4학급) 여자 136명
- 멀티미디어과(3학급) 여자 102명
- 정보처리과(3학급) 여자 102명

2. 지원자격

- 가. 2008. 2. 충청북도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
- 나. 전 가족이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
- 1.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 2. 학구로 인하여 인접 타 시·도 소재 중학교에서 수학한 자
 - 3. 법령에 의해 중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시행령 97조)
- ※ 단, 상기 거주하는 자' 라 함은 2007. 10. 31. 현재 전가족 (보호자 포함)이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자임.
- 다.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충북으로 이전된 자

3. 전형방법

- 가. 충청북도교육청 「2008학년도 고등학교입학전형 관리지침」에 의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4.4신상학에 따라 선발)
- 나. 동점자 처리기준-동점자 전원 합격
(소수정 여하 및 재 지위에서 반올림하여 셋째 자리까지 산출)
- 다. 학과별정원 모집 출정현의 범위내에서 지원순에 의해 성적순 배정
- 라. 면접 및 신체검사: 별첨시 입학사정에서 제외 (특기자 포함)

4. 전형일정

- 가. 원서 접수기간: 2007. 12. 10(월) ~ 12. 12(수) 17:00
- 나. 면접 및 신체검사: 2007. 12. 14(금) 10:00 (체육특기자 포함)
- 다. 입학허가 예정자 발표: 2007. 12. 17(일) 10:00
- 라. 최종합격자 발표: 2007. 12. 20(목) 10:00 (신고별 특스 순위)
- 마. 합격자 해비소집신고: 2008. 1. 4(금) 10:00

5. 제출서류

- 가. 중시원서(소정양식) 1통
- 나. 사진 2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컬러 소영철판, 3cmx4cm)
- 다. 석차 연명부(학교별) 1부
- ※ 탈모한 경우 응시지가 가려져 있는 석차연명부의 해당 쪽 복사본 제출 가능
- 라. 검정고시 합격자: 합격증서(사본) 1부, 성적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본인)지 직접 제출)
- 마. 체육특기자: 응시원서와 함께 특기자 심사원서 및 증명서류 첨부
- 바. 국가유공자 자녀: 출신 학교장 직인을 받아 제출
- 사. 기타 특례 입학자: 관계 서류를 갖추어 제출
- 아. 전형료: 3,000원

6. 특기자 선발

- 가. 특기자 모집 정원: 8명
- 나. 지원종류: 수영, 축구
- 다. 종목별 모집정원: 수영4명, 축구4명
- 라. 전형기준: 별지 「특기자 전형면제료, 참조
- 마. 합격자 발표: 2007. 12. 20(목) 10:00

7. 기타사항

- 가. 지원 배제 조건: 없음

대 / 성 / 여 / 자 / 상 / 업 / 고 / 등 / 학 / 교 /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수동 399번지 (우편번호 360-112)
 전 화 : 교무실 (043) 253-7422~3, FAX 257-7423
 통 장 실 : (043) 253-7421, FAX 221-7421
 홈페이지 : www.csb.hs.kr